

# 慶尙北道內 高等教育機關 圖書館實態調查 및 分析

金 南 碩  
崔 達 鉉

내 용	
I. 서 론	2. 자 료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일반도서
2. 연구 방법	(2) 정기간행물
3. 조사대상	3. 직 원
4. 조사의 제한점	4. 예 산
II. 일반개항	5. 봉 사
III. 자중현황 및 분석	IV. 요약 및 제언
1. 시 설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경상북도내 고등교육기관 부설 도서관에 대한 이 실태조사는 모든 종류에 걸친 경상북도 도서관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에 부속한 도서관은 다른 어느 종류의 도서관 보다 시설, 자료, 인원면에서 우수하며 효과적인 봉사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일반적 통념이 오늘날 경상북도내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에도 통용될수 있을 것인가, 또 시설, 자료,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어떤 형태로서 어느 정도의 봉사가 행해지고 있는가, 이 지역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에 대한 이러한 모든 의문점의 제시는 그 동안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나 그 구체적인 실마리는 이번의 이 실태조사가 처음인 것 같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는 현재 도내 18개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을 상대로 제반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제시하며 현행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 자원 및 봉사가 급변하는 현대 교육사조를 어느 정도로 충족시킬수 있는가를 알아내어서 그 개선책을 시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실태조사의 분석은 세가지의 직접적인 의의와 한가지의 간접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직접적인 의의는 오늘날 도내 고등교육기관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 분석하므로써 문제점을 도출해 내어 도서관 자체에 하나의 과성제가 되도록 하며, 개선책을 제시하고

로서 각관의 정책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 국가적 또는 지방적 도서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등이며, 이 실태조사가 주는 간접적 의의는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 되는 만큼 이 지방의 현대 도서관사에 하나의 사료를 남기게 된다는 부차적인 의의가 그것이다.

## 2. 연구 방법

본 조사는 1) 설문지 이용, 2) 문헌참고, 3) 기존 통계자료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작성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지 이용 : 본 조사를 위해서 실태 조사 및 설문지를 작성 해당기관에 배포하여 담당자로 부터 작성된 것을 직접 접수 파악하였다. 배포된 설문지의 수는 총 18개이며 이를 모두 회수하였다.

2) 문헌 참조 : 이의 합리적인 분석을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세칙의 대학도관 시설기준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간행된 각종 연구 문헌을 참조하였다.

3) 기존 통계자료의 참조 : 현황의 분석적인 대비를 위하여 각종 선행 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 3. 조사대상

1974년 8월 현재 경상북도내 5개소의 대학과 2개소의 교육대학 그리고 15개소의 전문학교를 포함한 총 22개소의 고등교육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18개관의 도서관 시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의 편의상 이를 4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즉 4년제 대학 도서관, 교육대학도서관, 일반전문학교 도서관, 간호전문학교 도서관 등의 4개 군이다

## 4. 조사의 제한점

본 조사는 실제적인 현장조사가 아닌 설문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가 완전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될수 없으며 따라서 통합된 통계자료도 상대적이라는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관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의 제시에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 독립된 도서관 시설이 18개소로 되어 있지만 김천 및 안동의 경우 전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실제적인 도서관 수는 16개소이나 전체 현황 및 통계작성을 위해 편의상 도서관 시설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하였음을 밝혀 둔다.

## II. 일반 개황

대학에 있어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위치는 “강의와 연구계획을 최대한으로 뒷받침”(1)

(1) 한완상 “大學教育改革과 大學圖書館 重要性의 재조명” 弘益(서울 : 弘益大學校) No. 14(1971). p. 70.

하는 종속기관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에 도전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고 호기심과 비판적인 능력을 일깨워 주며 배우고자하는 욕망의 자원<sup>(2)</sup>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도서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학교 행정가들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관심있는 정책 수립을 통하여 대학내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뒷받침하는 명실공히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시설, 자료, 인원의 활용을

(표 1) **고등교육기관의 일반개황**

구분	학 교 명	학생수	교직원	봉사대상	학 과	설립년	계관일
학 부	경 북 대 학	6,600	350	6,950	41	1952	350
	영 남 대 학	8,000	400	8,400	62	1947	296
	계 명 대 학	2,550	156	2,706	35	1958	300
	효 성 여 대	1,546	148	1,694	13	1952	216
	한 사 대	1,000	100	1,100	10	1956	
	계	19,696	1,154	20,850	161		
교 대	대 구 교 대	840	100	940	11	1962	210
	안 동 교 대	700	95	795	11	1965	300
	계	1,540	195	1,735	22		
일 반 전 문	영 남 공 전	2,200	80	2,280	6	1963	365
	포 항 실 업	1,000	50	1,050	11		240
	영 주 전 문	400	35	435	6	1973	
	상 지 전 문	500	28	528	7	1969	200
	상 주 농 잡	900	50	950	5	1969	240
	계	5,000	243	5,243	35		
간 호 전 문	동 산 간 호	133	7	140	1	1924	대 구 보 건 합 회
	대 구 간 호	870	51	921	6	1973	
	김 천 간 호	220	7	227	1		
	포 항 간 호	160	20	180	1	1969	
	제 남 간 호	166	14	180	1	1974	
	안 동 간 호	160	6	166	1	1974	
	계	1,709	105	1,814	11		
총 계		27,945	1,697	29,642	229		

(2) N. A. Gelfand "The College Librarian in the Academic Communit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o.10(1949.4) p.30

기해야 할 것이고 도서관인은 보다 효과적인 대학도서관의 운영을 기하여 만족할만한 봉사를 수행하므로써 대학교육의 성공적 수행과 대학도서관의 효과적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1974년 4월 1일 현재 경상북도내 고등교육기관은 학부과정으로서 2개의 종합대학교 3개의 단과대학이 있으며 초급대학과정으로 2개의 교육대학이 있고 전문학교 과정으로서 15개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중 8개는 일반전문학교이고 7개는 간호전문학교이다. 이들중 5개의 학부와 1개의 간호전문학교 도서관은 1950년 이전에 설립된 것이고 2개의 교육대학과 14개의 전문학교 도서관은 모두 1960년대 이후에 개관한 것이다. 특히 간호전문 학교의 경우 1924년과 1969년에 각각 설립된 동산 및 포항 간호전문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973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서 그 사적인 배경으로 보아서도 도서관을 제대로 갖추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일반전문학교 8개중에 3개의 전문학교<sup>(3)</sup>는 4년제대학에 병설되어 있고 7개의 간호전문학교 중에서 대구간호학교와 대구 보건전문학교가 병합되어 동일한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경북도내 고등교육기관은 모두 22개소이나 독립된 도서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3개의 병설전문학교와 병합된 1개의 시설을 제외한 18개소로 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김천 및 안동의 경우는 그 시설이 전혀 없어 실제적으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수는 16개이다.

이것을 다시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2) 설립별 고등교육기관과 도서관수

구 분		국, 공립	사 립	계	비 고
학 부	종합대학	1(1)	1(1)	2(2)	
	단과대학		3(3)	3(3)	
교육대학		2(2)		2(2)	
전문	일반전문		8(5)	8(5)	병전은 학부포함 대구간호, 보건포함
	간호전문	3(3)	4(3)	7(6)	
계		6(6)	16(12)	22(18)	

표 2에서와 같이 전체 22개 시설에 18개 도서관이 있고 국, 공립도서관이 6개소, 사립이 12개소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독립된 건물을 가진것은 학부의 5개의 교대 2개, 전문학교 1개로 8개이고 그 외의 10개는 도서관에 불과하다.

이들 시설에 대한 봉사와 활용에 관한 일반적인 개황을 보면 도내의 봉사대상 인구

(3) 3개의 전문학교는 영남대학교 병설전문학교, 계명대학 병설전문학교, 한국사회사업대학 병설 전문학교 인데 이들은 4年制大學과 공동으로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음.

는 학생 27,945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의 70%인 19,696명은 학부에 속하고 있고, 일반전문학교 5,000명, 간호 1,709명, 교대 1,540명의 순서로 되어 있다. 교직원 1,697명을 포함한 전체의 봉사대상은 29,642명이다. 학과수는 총 229개학과로 학부 127개학과, 교육대학 22개학반, 일반전문학교 69개학과, 간호전문학교 11개학과로 되어 있다. 개관일수는 보통 200—300일 정도로 되어 있으나 도서관에 따라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Ⅲ. 각종 현황 및 분석

#### 1. 시 설

도서관이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건물과 시설 장서 직원등의 제조건이 상응해야 되고 이것이 전체로서 균형을 유지할때 효과적인 봉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도서관 시설이라함은 자료에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장소제공인 건물, 시설과 그에 따른 비품 시설 및 기재시설을 말한다.<sup>(4)</sup> 그러나 이와같은 도서관은 열람실을 가진 보잘것없는 책 창고로서가 아니라 교육의 한 동태적인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sup>(5)</sup>

여기에서 시설 기준을 중심으로 열람시설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표 3) 도서관 시설

구 분	총 평 수	열 람 석	1인당평수	1 석 당 수 학 생 수	기준좌석	기 도달율(%) 준
학 부	4,301.07	2,070	0.22	10	2,954	70%
교 대	503.7	464	0.33	3.3	231	200%
일반전문	462	484	0.09	10.3	750	65%
간호전문	317	287	0.18	6	257	112%
계	5,583.77	3,305	0.2	8	4,192	79%

1) 학부: 대학도서관의 시설 기준은 표 3에서와 같이 총 좌석 2,954석으로 되어 있으나 현보유는 2,070석으로 기준의 70%에 이르고 있다. 이를 다시 학교별로 보면 종합대학의 경우 경대 67%, 영대 37%로 기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여타의 3개 단과대학은 모두 그 기준을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효대의 경우는 165%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1인당 평수에 있어서도 효대가 0.62평으로 가장 넓고, 제대와 한사대가 0.28평, 정대의 경우는 0.19평이며, 영대의 경우는 가장 부진하여 0.13평에 불과하다. 대학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나타난 1인당 평수는 0.5평인바 효성여대를

(4) 건국도서관 실태조사: 上(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p.97.

(5) N. A. 제링그, 大學圖書館, 李炳穆譯(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p.2.

제의한 나머지 도서관의 경우는 모두 기준 미달이다. 학생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도서관 시설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교육대학 : 표에 의하면 4개의 부류중 가장 높은 기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준 과석 231석에 비하여 464석으로 200%의 기준율을 보이고 있다. 안동교대의 경우 284%의 비율로 1석당 인구는 3인으로 나타났으나 1인당 평수는 0.5명으로 겨우 기준에 도달하고 있다. 대구교육대학은 1석당 학생은 학부 도서관에 비해 우세하기는 하나 1인당 평수는 0.28명정도로 기준에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3) 일반전문학교 : 5,000명의 봉사대상자를 위한 전체의 열람석은 484석으로 기준인 750석에 비하여 65%에 이르고 있으며 1석당 학생의 비는 10.3인으로 되어 있어 학부나 교대에 비하면 크게 뒤져 있다. 영주전문이 176.7%로 기준을 초과한 이의는 모두 기준 미달이며 그 중에서도 상주농림, 영남공전의 경우는 50%에도 미달하고 있다. 시설을 위한 총평수는 462명으로 1인당 0.092명이다. 영주의 0.3명을 제외하고는 한결 같이 0.1명 미만으로 시설면에서도 많은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학문의 조건 조성을 위하여 시설의 증가 및 향상이 시급히 요구되어 지고 있다.

4) 간호전문학교 : 총 열람석 287석으로 기준 257석을 초과하고 있으나 동산간호 460%, 제남 365%, 포항 166%를 제외하고는 대구간호가 46%를 보이고 있으며, 김천, 안동의 경우는 아직도 아무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설 평수에 있어서도 평균 0.18명이고 제남 0.9명, 동산 0.57명, 포항 0.19명으로 되어 있다. 대구간호는 0.07명으로 크게 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약간의 비합리적인 통제가 있음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즉 동산간호전문학교의 경우 도서관 총평수가 76명인데 열람과석이 96석이나 된다는 점은 도서관내에 봉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부수적 시설은 전혀 없고 오직 열람과석만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통계작성시 어떤 미스가 있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하여튼 간호전문학교의 경우 도서관 시설이 기준의 112%나 되어 다른 부류의 도서관 시설에 비해 훨씬 앞서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김천 및 안동간호전문문의 경우 아직까지 아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도서관 건립을 위한(아니면 기존시설의 일부를 이용한) 모색이 시도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전 시설물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볼때 1인당 기준평수 0.5명에 비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준과석 4,192석에 대해 겨우 79%밖에 이르고 있지 못하여 봉사에 크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 18개관의 도서관 시설을 그 규모에 따라 나누어 보기로 하자.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개관중 16.6%에 해당하는 3개관의 도서관이 50명 미만이며 한평의 시설규모도 갖지 못한 도서관이 2개관이고 400명 이상의 도서관은 학부의 4개관에 불과하다. 전문학교의 11개 도서관은 모두 200명 이하라서 전문학교에 있

(표 4)

규모별 시설 현황

구분	시설 없음	50평 미만	50— 100평	101평— 200평	201평— 400평	400평 이상	계
학부					1	4	5
교대					2		2
일반전문		2	1	2			5
간호전문	2	1	2	1			6
계	2	3	3	3	3	4	18

어서 새로운 시설의 설치는 물론 기존 시설의 확충도 하나의 크다란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 2. 자 료

### (1) 일반도서

도내 18개 고등교육기관 도서관의 총장서는 592,250권으로서 이는 법적기준장서 924,330권에 비해 63.9%에 해당하며 봉사대상 인구 1인당 19.9책, 학생 1인당 21.2책으로서 우리나라 전국 대학생 1인당 장서 28.9책<sup>(6)</sup>에 비해 27%나 부족하고 “일본 42.3책, 미국 43.3책”<sup>(7)</sup>에 비해 50%나 부족한 현상이다.

이런 사의를 불태우는 장서의 질적 향상 문제는 일단 짚어두고라도 대학의 연구교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양적인 확보문제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다음에서 이미 분류된 4개 부류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5) 장 서 현 황

구분	장서 계	학생 1인 당 장서	봉사대 상 1인 당 장서	시설기준▲	도달율(%)
학부	505,949	25.7	24.3	747,200	67.6
교대	37,699	24.5	21.7	72,600	51.9
일반전문	51,642	10.3	9.8	112,200	46.0
간호전문	7,760	46.5	44.3	34,180	22.7
계	592,250	21.2	19.9	924,330	63.9

▲ 학부와 일반전문학교는 학과를 대상으로 하여 학부는 1학과당 5,000권, 일반전문은 1학과당 3,300권으로 계산하였으며, 교대는 적반별로 1개반을 1학과로하여 3,300권으로 함. 간호전문은 학생수를 대상으로 1학생당 20권으로 계산하였음.

(6) 韓國圖書館一覽, 1969. (서울: 韓國協, 1969)

(7) 전국도서관 실태조사: 상, *Op. Cit.*, p.147.

※ 법적기준: 學部 1學科當 5,000권

專門, 初大 1學科當 學部의 2/3인 3,300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1) 학부 : 학부 도서관은 1인당 평균 25.7책으로 30책 기준에 거의 도달하고 있으나 학과당 기준에 의하면 크게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병설 전문학교를 가지고 있는 제대나 영남대의 경우는 더욱 큰 부족을 보이고 있다. 5개대학의 도서관이 확보해야 할 장서 기준은 161개 학과에 총장서 747,200권이 되어야 하나 현재 보유장서는 505,949권으로 기준 도달율은 67.6%에 이르고 있다. 다시 각 도서관 별로 보면 호성여대가 103.2%로 그 기준을 초과하고 있을 따름이고 그 외의 4개 도서관은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히 한사대는 42.8%, 제대는 48.5%로 기준의 50%에도 도달치 못하고 있어 장서의 양적 확보문제가 시급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교육대학 : 2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교육대학의 경우 기준은 학과대신에 반을 대상으로 하여 1개반당 3,300권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각 11개반을 가지고 있는 2개의 교육대학 기준장서는 72,600권인데 현재의 보유는 37,699권으로 51.9%에 불과하고 대구교육대학의 경우는 72.1%에 이르고 있으나 안동의 경우는 31.8%로 크게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일반전문학교 : 전문학교 5개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51,642권의 장서는 기준 112,200권에 비해 46%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봉사대상 5,243명에 대한 장서비는 1인당 9.8책으로서 포항실업의 19.9책의 경우를 제외한 4개도서관은 1인당 평균 5책 정도에 불과하다. 또 포항 2만권 영남공전 1만권의 장서를 제외한 3개 도서관은 1개관의 총장서가 2천원에서 4천원 정도로서 영주전문 12.1%, 상지전문 13%, 상주농산 28.9%의 기준 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장서 비율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학교 도서관은 그 설립년도로 보아 거의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신설 도서관 이라는데 장서의 부족 원인이 있겠으나 학부에 비해 너무도 빈약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4) 간호전문학교 : 간호전문학교의 경우는 그 기준을 학과 단위보다 학생단위로 해서 산정하였다. 동산간호의 경우는 기준의 150%를 상회하고 김천, 안동 등의 경우는 한편의 장서도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전체의 비율은 기준 34,180권에 비해 7,760권을 소장하고 있어 기준의 24.5%에 이르고 있고 비록 학생수에 의한 기준은 크게 상회하고 있는 동산간호전문문의 경우도 대학의 1학과의 기준에 불과하고 총장서 5,000권 중 4,200권이 기증에 의한 양서에 의존하고 있어 학생을 위한 정보자료의 봉사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외의 학교는 전문학교의 1개학과의 기준인 3,300권의 장서기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1권의 장서도 보유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전문학교가 2개나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에서 위의 4개의 부류를 장서구성비에 의해서 알아보면 18개의 시설중 10만권 이상의 도서관은 학부과정의 2개뿐이고 2,000권 이하가 5개관이며 10,001—50,000권 사이가 5개관이다. 다음으로 2,001—5,000권 사이가 4개관, 50,001—100,000권이



(표 6)

규모별 장서 현황

구 분	미보유	500원 이하	501—1,000	1,001—2,000	2,001—5,000	5,001—10,000	10,001—50,000	50,001—100,000	10만 원 이상	계
학 부							1	2	2	5
교 대							2			2
일반전문					3		2			5
간호전문	2	1	1	1	1					6
계	2	1	1	1	4		5	2	2	18

2개관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5,000원 이하의 9개관이 모두 전문학교 도서관이고 그중에서 2,000원 이하가 5개인데 이것은 모두 간호전문 학교이다.

이것을 다시 년간 증가 현황별로 살펴보면

(표 7)

년간 장서 증가 현황

구 분	증 가 없음	500원 미 만	500— 1,000	1,001— 3,000	3,001— 5,000	5,000 이 상	개
학 부				1	1	3	5
교 대				2			2
일 반 전 문		2		3			5
간 호 전 문	2	3	1				6
계	2	5	1	6	1	3	18

년간 증가는 18개관중 전문학교의 7개관이 500원 미만이고 1,001—3,000원 사이가 6개관으로 교육대학과 일반전문학교가 여기에 속하고 있다. 학부의 경우는 2개관을 제외하고는 5,000원 이상의 장서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가들이 도서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 함으로서 해결이 가능해 질 것이다.

## (2) 정기간행물

1969년의 정기간행물 기사색인(국회도서관 발간)에 수록된 우리나라의 정기간행물 수는 약 260종이다. 이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은 전문지를 약 60종으로 보고 대학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양지를 약 50여종으로 보면 모두 110종이 된다.

그리고 일본 및 기타 여러 나라의 잡지를 고려 한다면 최소한도 1개관에 400종을 이상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때 정부의 총 2,263종은 1개관당 평균 125종으로 우리나라의 법적기준인 총 1,344종에 비해 168%를 초과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한 400종에 비하면 1개관당 275종이나 부족하며, 우리나라의 도서관당 평균 156종에 비하면 31종이나 부

족한 것이고 일본의 435종<sup>(8)</sup>, 미국의 1,480종<sup>(9)</sup>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

(표 8) 정기 간행물 현황

구 분	신 문					잡 지				
	국내	국외	계	기준	%	국내	국외	계	기준	%
학 부	164	15	179	75	239	841	1,035	1,876	966	194
교 대	83	3	86	20	430	245	63	303	132	229.5
일 반 전 문	37	1	38	50	76	42	25	67	210	31.9
간 호 전 문	25	0	25	60	42	15	2	17	36	47.2
계	309	19	328	205	160	1,143	1,125	2,263	1,344	168

1) 학부: 모든 자료종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정기간행물이다. 이는 기준에 비해 190%나 초과하고 있으며 영남대학의 101%를 제외하고는 한사대 150%, 호대 200%, 계대 245%, 경대 300%로 한결같이 높은 구독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학부와 비교해 보면 4년제 대학의 잡지 평균 구독 종수가 222종인데 비해 경북의 경우는 평균 375종으로 전국 대학의 추세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신문의 경우도 총 179종으로 되어 있으나 국내 164종에 비하여 국외가 15종으로 많은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영대, 호대, 한사대의 경우는 20종 이하이지만 경대, 계대의 경우는 60종을 초과하고 있다.

2) 교육대학: 신문 기준수 10종에 비하여 대구교대 5종으로 50%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고 안동의 경우는 81종으로 상당히 높은 구독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했던 81종이란 수치는 각종 주간지 및 대학신문을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 되어 정확한 현황을 알 수가 없다.

잡지의 경우는 기준 132종에 현재 303종으로 229.5%에 이르고 있으며 대구교대의 경우는 239.4%이고, 안동은 169.7%로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그 구성비에 있어서는 외국잡지가 63종으로 20.8%에 불과하여 국내 잡지에 비해 크게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안동 교대의 35종에 비해 대구교대가 28종에 불과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3) 일반전문학교: 초급대학의 신문 구독기준은 1개 학교에 10종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5개의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수는 불과 38종으로 기준수 50종의 76%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포함실업 11종, 상지 9종을 제외한 3개도서관은 크게 부족현

(8) 日本の圖書館: 1969(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69)

(9)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1968(N. Y., R. R. Bowker, 1968)

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신문의 경우는 영남공전 1종뿐이다.

잡지의 경우도 기준에 비하여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준에는 학술지도 문학과 달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교양지도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31.9%에 불과하고 영남공전, 영주전문문의 55.6%에 도달한것 외에는 3개의 도서관은 30%에도 미달하고 있고 상주와 상지의 경우는 전체가 7종내지 8종을 구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의 전문학교 및 초급대학의 현황 24종에 비해 크게 뒤져있다.

4) 간호전문학교: 모든 시설에서와 같이 정간물의 경우도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동산, 김천, 안동의 경우는 1종의 학생열람용 신문도 없으며, 잡지에 있어서는도 마찬가지로 1종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6개의 도서관중 대구간호대학의 신문, 잡지에 대한 비교적 균형있는 구독의에는 한결같이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지식사회에 대처하여 새로운 학문창조를 위해 신속한 정보의 제공이 크게 요구되어지는 때에 간호 전문학교의 실태는 이를 역행하고 있어 이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간호원의 해외 진출이라는 인력수급을 위한 교육의 담당을 위해서도 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다 과감한 개혁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 3. 직 원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지적 양식을 제공하고 교수진의 연구를 뒷받침해야 하며

(표 9) 직 원 현 황

구 분	수서, 정리, 서무			열 략 부			기 타
	전문사서	비전문	계	전문사서	비전문	계	
학 부	21	17	38(40%)	16	28	44(46%)	13
교 대	2	4	6(55%)		3	3(27%)	2
일반전문	7	4	11(69%)		2	2(12%)	3
간호전문		7	7(100%)				
계	30	32	62(48%)	16	33	49(38%)	18
구 분	계			사 서	전문직	전 직	기 타
	전문사서	비전문	계	1인당 봉사인구	1인당 봉사인구	기	문 직도 달유 %
학 부	37	58	95(100%)	207	532	38	97
교 대	2	9	11(100%)	140	770	6	30
일반전문	7	9	16(100%)	313	714	14	50
간호전문		7	7(100%)	244		13	0
계	46(35%)	83(65%)	129(100%)	218	608	71	64.8

모든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의 모든 지적 문화적 향연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교수의 일원으로 교과과정의 모든 과목과 연관되는 조사 및 연구면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해야 한다.<sup>(10)</sup>

이러한 의미에서 도서관 사서의 임무는 막중한 것이라 하겠다. 경북의 고등교육기관의 사서는 총 129명이며 그 중 전문직원은 46명이다. 전문직원은 전체직원의 약 35%에 해당하고 기준인원 71명에 대하여 64.8%에 이르고 있다. 사서 1인당 봉사대상은 218명이지만 전문인 1인당 봉사인구는 608명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사서 1인당 547명<sup>(11)</sup>에 비하면 61명이나 많고 미국의 466명<sup>(12)</sup>에 비하면 142명이나 많은 부담율을 보이고 있다.

1) 학부 : 봉사기능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은 전체가 95명으로 1인당 봉사대상인구는 207명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전문인은 37명으로 전체직원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준 인원 38명의 97%에 이르고 있다. 이들 전문인당 봉사인구는 532명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사서 1인당 봉사인구 547명에 비하면 약간 우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학교별에 의하면 경대 440명, 계대 364명을 제외하고는 호대 773명, 영대 800명, 한사대 515명으로 기준인 500명을 상회하고 있어 전문직 사서의 업무량이 과중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대의 경우는 800명으로 기준에 비해 71%의 확보를 보이고 있어 타 대학에 비해 가장 부족한 현상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체의 46.3%에 해당하는 44명이 열람부에 종사하고 53.7%에 해당하는 51명이 정리, 관리부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직 사서의 경우는 총 37명중 60%에 해당하는 21명이 정리부에 종사하고 있어 봉사를 위한 본래적인 기능 발휘보다는 내적인 자체정비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2) 교육대학 : 2개의 교육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의 약 20%에 해당하는 2명의 직원이 전문사서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2명은 각 도서관 책임자로서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종사원 1인당 봉사인구는 140명이지만 전문사서의 경우는 기준인 500명을 초과한 770명이나 된다. 기준 도달율은 30%에 이르고 있어 사서의 부족 현상을 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근무지별로 보면 11명중 6명(60%)이 정리나 수서부인 내적인 일에 종사하고 열람분야에서는 5명의 비전문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여기에서도 열람분야의 경시풍토를 엿볼수 있다.

3) 일반전문학교 : 직원의 구성비에 있어서 학교별 차가 가장 심한 곳은 일반전문학교라고 하겠다. 전체의 직원은 16명이요 전문직원은 7명이나 전문직에 있어서는 기준의 50%에도 미달하고 있다. 상주농잠인 경우 2명의 사서가 있으나 전문직이 한사람도 없으며 학생수에 비해 100%를 초과하는 도서관은 영주전문학교뿐이다(고교서

(10) 李應善, 大學圖書館經營의 合理化 方案에 關한 研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3. p.9.

(11) 韓國圖書館一覽, 1969.

(12) The Bowker Annual, 1968.

에 의하면), 5개의 도서관에 종사하는 16명의 직원이 담당해야 할 봉사 인구는 1인당 313명이고 전문직 1인당 봉사인구는 714명이나 되며, 영남공전의 경우는 1,100명이나 되어 전문사서의 확보문제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들도 교육대학과 같이 16명의 직원중 7명의 전문직을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정리부나 내적인 일에 종사하고 1개 도서관에 1명에 해당하는 비전문직 5명이 열람부에서 종사하고 있어 정리분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은 학부의 경우나 동일하다고 하겠다.

4) 간호전문학교 : 6개의 간호전문학교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7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모두 비전문직으로 1개의 도서관에 1명의 비율이 되며 동산간호 2명, 포항간호 1명을 제외한 대구간호, 김천간호, 제남간호, 안동간호의 경우는 한사람의 직원도 없다.

이러한 현상으로는 도서관의 가장 초보적인 정리업무는 물론이거니와 서비스의 기능을 생각한다는 것은 요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 4. 예 산

예산의 부족현상은 도서관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어 많은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기초인 시설에서부터 자료의 구입, 직원의 부족 등은 모두가 예산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상북도내 18개 교육요육기관 도서관 시설의 1974년도 총예산규모는 159,608,028원으로 1개관당 예산 평균은 8,867,113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총예산의 87%에 해당하는 138,689,440원은 5개의 학부도서관에 편중되어 있고 이를 제외하면 교육대학이 8,776,588(5%)원, 일반전문학교가 9,474,000원(6%) 간호전문이 2,668,000원(2%)에 불과하다. 이를 다시 4개의 표준부류로 나누어 분석하고자한다.

1) 학부 : 5개대학 도서관의 예산규모는 1973년의 총예산 70,070,030원에 비해 1974년의 예산은 138,689,440원으로 198%나 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 도서관비는 6,986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대 11,873원과 호대의 13,536원에 비하면 영대가 6,500원, 한사대 4,000원으로 되어있어 학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학생 1인당 평균 6,986원의 도서관비는 우리나라의 평균 2,527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되어 있으나 일본 6,400<sup>(13)</sup>원, 미국 59,258(23,726)<sup>(14)</sup>원에 비하면 크게 뒤져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1973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수있는 자료비의 경우 20-30% 정도의 저조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74년의 전체적인 도서관 예산과 자료비와의 구성비율도

(13) 日本の圖書館, *Op. Cit.*

(14) The Bowker Annual, *Op. Cit.*

(표 10)

## 예 산 현 황

구 분	인 건 비	자 료 비	예 산 비	시 설 비
학 부	28,298,440	67,675,000 (48%)	7,122,000	1,310,000
교 대	855,000	5,476,488 (62.4%)	280,000	
일반 전문	1,713,000	6,286,550 (66.4%)	150,000	220,000
간호 전문	500,000	1,668,000 (62.5%)		500,000
계	31,366,440	81,106,037 (50.8%)	7,552,000	2,030,000

  

구 분	비 률 비	기 타 총	학생 1인당 도서관비	학생 1인당 자료비	
학 부	10,785,600	12,498,400	138,689,440 (100%)	6,986	3,436
교 대	1,150,000	1,015,100	8,776,588 (100%)	5,699	3,556
일반 전문	540,000	527,450	9,474,000 (100%)	1,895	1,559
간호 전문			2,668,000 (100%)	1,561	976
계	12,475,600	14,040,950	159,608,028 (100%)	5,712	2,652

년 1973년 자료비 76%에서 1974년에는 48%로 그 비율이 줄어 들었음을 보이고 있어 대학도서관 시설 기준에 의거한 자료확보 문제가 전보다 훨씬 악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1974년의 도서관비의 증가는 그 많은 비용을 시설의 관리비에 충당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2) 교육대학 : 2개 도서관의 1973년도 총예산 9,505,159원에서 1974년에는 8,776,588원으로 728,571원이나 줄었다. 전체적인 도서관 예산에 비하여 자료비에 있어서도 대구교대 71%에서 62%로, 안동교대 66%에서 62%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학년 1인당 자료비도 1973년 대구 교육대학이 5,432원에서 4,103원으로, 안동교육대학이 2,970원에서 2,900원으로 줄어들고 있어 정보원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예산의 증가는 고소하고 자료비에서 73만원이나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학부에서의 다량까지로 예산의 많은 부분이 기존 시설의 유지에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학문은 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정보의 폭발이라 불리우리만큼 자료의 양

이 다양화 및 대량화되어 폭넓은 구입이 요망되는 데에도 자료비의 전체예산에 대한 구성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도서관정책의 크다란 결함을 드러내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망되고 있으며 특히 2세국민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양성기관이란 점에서 불대 더욱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3) 일반전문학교 : 전문학교의 경우 총예산액은 9,474,000원으로 1973년 7,763,800원에 비하여 1,710,200원이 증가하였고 자료비도 1973년 4,860,550원에서 1974년 6,286,550원으로 1,426,000원이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도서관비는 1,895원이고 자료비는 1인당 1,559원으로 전체 예산의 66.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생도서관비에 의한 자 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상지전문이 2,834원으로 가장 높고 영주 2,500원, 포항 1,200원, 영남 1,014원, 상주 488원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 1인당 평균 도서관비 1,895원은 1968년도의 국내 대학도서관의 학생 1인당 예산액 2,527원에 비해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금번 통계의 동일한 2년제 대학인 교육대학 5,699원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간호전문학교 : 총예산은 2,668,000원으로 1973년 2,248,000원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였다. 학생 1인당 도서관비는 1,561원으로 다른 부류의 도서관들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으며 자료비도 976원으로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구입비로서는 너무나 빈약한 현실이다. 학교별로 보면 제남 1,500,000원으로 제일 많고 대구간호 718,000원, 포항간호 240,000원, 김천간호 110,000원, 등산간호 100,000원의 순으로 되어있으며, 안동의 경우는 전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다.

## 5. 봉 사

도서관이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는 모든 행위는 오직 가장 효과적인이용 즉 봉

(표 11) 봉 사 현 황

구 분	대출책수	1일 평균 대출책수	전체 대상에 대한 1일 이용 비율	전체 장서에 대한 1일 이 용책수의 비율	1인당 연간 자료 이용 회수
학 부	322,160	1,151	6.6%	0.24%	16.9회
교 대	28,828	155	8.8%	0.34%	18.7회
일반전문	94,221	224	4.3%	0.7%	10.9회
간호전문	1,796	6	0.83%	0.32%	2회
계	447,005	1,536	평균 5.13%	평균 0.40%	12.1회

- ① 관내열람의 경우는 실문지 응답학교가 수개학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통계는 산출할수 없었음. 따라서 이용통계는 대출책수를 기준하였음.  
② 전체의 년간 개관일수는 평균 260일로 하여 통계가 작성되었음.

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제시된 많은 항목속에서 여러가지 제시되어 왔지만 특히 봉사부문에 있어서는 대학과 전문학교 사이에 보다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각종 도서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봉사가 모두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고 있어 도서관의 진로 문제가 크게 흔들림을 받을까 우려된다.

1) 학부 : 이용통계는 이용인원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며 대출된 책수로서 1인 1책으로 산정하였다. 관외대출인 경우 전체 이용책수는 322,160책으로 1일평균 1,151책이 사용되어 대상인구 20,850명의 6.6%가 도서관을 이용한 것이고, 총장서의 불과 0.2%의 장서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직원들의 구성상의 분석에서도 언급 하였지만 아직도 열람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하는 것은 도서관의 발전이 기초적인 정리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잘라 볼수 있었다. 연간 1인당 이용회수는 17회에 불과하며 이것을 학교별로 보면 호태가 35.2회로 가장 많고 계대 19.2회, 경대 18.7회, 한사대 11.5회, 영남대 10.1회의 순으로 되어 있다. 장서에 대한 이용비율도 호태 0.37%, 한사대 0.25%, 경대 0.23% 계대 2.2%, 영대 0.17%로 되어 있다. 이용대상자에 대한 이용비율은 호태 14.1%, 경대 5.3%, 계대 5.2%, 한사대 4.4%, 영대 4.1%의 순으로 되어 있어 도서관을 통한 교육방법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각 한부도서관의 도서 이용율은 국내 타 대학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하겠다. 즉 도서대출 책수는 322,160책으로 전체장서 505,949책의 51%를 차지하는데 비해 국내 각대학의 평균 전체장서에 대한관의 대출비율은 28.4%이다.

2) 교육대학 : 총장서 37,699권에 대한 연간 이용책수는 28,828책으로 1,540명의 학생을 1일 평균 155명이 이용한 것이다. 대구교육대학은 전체학생 840명중 18.5%에 해당하는 학생이 관내 열람을 하였고 연간 학생 1인당 도서관 이용은 38.7회로 1주 1회 정도이며 메릭전체학생의 11.2%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총장서 26,159권의 0.36%에 해당하는 도서를 이용한 것이 된다. 안동교육대학의 경우는 연간 관외 이용책수는 9,113책으로 1인 평균 34책이 이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이용자가 4.9%에 해당하는 장서인 장서의 0.29%를 이용한 것이고 연간 1인당 이용회수는 11.5회로 대구교육대학의 38.7회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후 다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용대상자에 대한 이용율은 8.8%이고 1인당 연간 자료이용회수는 18.7회로서 선정된 4개의 부류중에서 가장많은 자료 이용도를 보이고 있다.

3) 일반전문학교 : 집계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일반공립이 1인당 평균 이용장서가 4.4%에 해당하는 102권으로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장서건수 50만, 장주본건수 48만, 포함성인 22명으로 되어 있으며 이용대상자의 비는 상주농림 5.1%, 포항지역성인의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장서의 이용율은 연간 1.7%가 가장 높고



그 외의 학교는 상주농잡 0.6%, 상지 0.29%이며 1인당 이용회수 역시 영남이 16.8회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포항실업 5.5회, 영주 0.85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삼지전문 및 상주전문의 경우는 관내, 관외열람의 어느 경우에도 응답을 하지 않아 전체 대출인원 및 책수 통계축출방법이 타당했는지 의문시 된다.

4) 간호전문학교 : 6개 도서관중 통계를 낼수있을 정도의 도서관은 불과 2개관으로 그 외의 4개관은 아무런 이용에 대한 통계를 얻지 못했다. 입수된 2개의 경우를 보되 대구간호의 경우 1일 평균이용자는 4명으로 이용대상자의 0.46%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간 1인당 이용회수는 1.5회로 되어 있고, 제남의 경우는 그대로 간호전문학교중에서 도서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 도서관에서는 매일 전체이용대상의 18%에 해당하는 30명의 학생이 전체장서의 6.4%에 해당하는 470책을 이용하고 있다. 연간 1인당 이용빈도 역시 77회나 되고 있어 간호대학 가운데서 가장 좋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도서관의 대출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않은 동산간호 및 포항간호전문의 경우(김천 및 안동의 경우는 도서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일단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도서관의 대출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봉사의 가장 근본적인 도서관대출 마저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도서관존재의 의의가 전혀 없어지고마는 것이다. 도서관의 대출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Ⅳ. 요약 및 제언

도서관은 그 학교의 심장이라고 한다.

질이 높은 대학교육은 질이 높은 도서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 학교의 모든 연구활동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활동이 없는 학교는 생명체가 없는 정지된 학교인 것이다. 학교의 이러한 연구활동의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지원자로서 도서관의 가치가 중차대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오늘날 경북도내 제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실태는 고등교육의 기본이념과는 거리가 먼 변칙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의 교과과정이나 교육연구활동을 뒷받침해 줄만큼 훌륭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이상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행히도 한곳도 없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학부 및 교육대학의 경우는 어느 정도 체면유지가 되고 있으나 일반전문학교, 특히 간호전문학교의 경우 차마 분석하기조차 곤란한 정도의 실정에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토대로하여 새로운 방향의 모색과 계획성 있는 좌표를 정립함으로써 현상 탈피를 위한 보다 활발한 강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1) 도서관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년차적인)을 세우고 이의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2) 아직도 도서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학교는 조속히 시설을 건립토록 학교당국이 노력할 것.

3) 문교부가 제정한 도서관 장서기준을 확보할 것.

4) 신 학문이나 새로운 연구경향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학술 및 전문잡지의 구독량을 대폭 늘릴 것.

5) 학교당국의 효과적인 도서관 업무와 봉사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자격있는 사서를 대폭 보강할 것.

6) 학교당국은 교과과정 및 연구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폭 넓은 자료구입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예산을 늘리고 전체예산에 대한 자료구입비의 비중을 높일 것.

7) 아직도 관외대출이 시행되지 않는 도서관은 이의시행을 조속히 하고 대출활동이 부진한 도서관은 이의 확대방안에 대해 계속 연구할 것.

8) 학생들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도서관자료를 중심한 교과과정의 편성을 기할것.

9)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서관 자체의 유인체제를 정비할 것.

10) 문교부 당국은 가장 낙후된 전문학교의 도서관의 현상타계를 위한 특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실시에 있어서 강력한 행정력과 지도력을 구사할 것.

## 참 고 문 헌

李應善, 大學圖書館 經營의 合理化 方案에 關한 研究, 연세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3.

전국 도서관, 실태; 上,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제럴드, N. A. 大學圖書館, 李炳穆 譯,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한국도서관일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9—1973.

한완상, “大學教育改革과 大學圖書館 重要性의 재조명” 弘益(서울: 弘益大學校), No. 14(1971)

日本の圖書館,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69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1968. New York: R. R. Bowker, 1968.

Gelfand, M. A. “The College Librarian: in the Academic Communit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No. 10 (1949. 4)

# Current State of Higher Educational Libraries in Gyeong Buk Province and its Analysis

Kim, Nam Seuk

Choe, Dal Hyun

## {Summary}

As a part of the status report of all the libraries of Gyeong Buk Province, the libraries of 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province were first examin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ethods were employed for this investigation: 1) questionnaires were sent to the libraries to gather necessary data and 2) the library standards as set by the government were applied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and other related statistical studies and reports were consulted.

Eighteen libraries in the 22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province were examined as of August 1974. For the convenience of the study, the 18 librarie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four-year college library, two-year normal school library, two-year junior college library, and three-year nursing school library.

Paul Buck contends that the library is the center of academic life and that the quality higher education is not possible without a quality library. This is so because all the research activities have to be supported by good library facilities. Moreover it is difficult to justify the *raison d'être* of an academic community if there is no active research activities in it. If the proposition is accepted that the library plays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in research and that resear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an academic community, it cannot be helped but observe that the role the libraries in the province play today is irregular and is far from the educational ideals 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envisage.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at there was not a single library in the province which could truly support the research and classroom activities of 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college and the normal school libraries, nonetheless, had some facilities to be analyzed. The nursing school and the junior college libraries unfortunately had virtually nothing. It is hoped on the basis of the present study that the libraries should reorganize themselves and look for new directions for active support of research activities.